



아시아 역내 무역 활주로 개척 한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한국은 경쟁력있는 수출 부문을 활용하여 2020년 5,460억 달러에서 2030년 2조 2천억 달러로 11개의 주요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 가치를 4배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시장 요약은 UPS가 의뢰하고 알파벳이 개발한 대규모 연구인 "아시아 역내 무역 활주로 개척: 2030년까지 아시아 역내 무역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 인사이트"의 일부분으로 한국의 아시아 역내 무역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인사이트 개요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12개 시장(즉, "아시아-12")은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의 부상과 2030년까지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주요 핵심 인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오늘날 글로벌 무역 관계의 변동성 증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시아 무역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정부와 기업에서 이러한 기회와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을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시장 요약본은 영토나 경계의 지위나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주로 중국 본토를 지칭합니다. 데이터 출처 및 방법론을 포함한 전체 인사이트는 다음에서 전체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about.ups.com/sg/en/home.html>



한국의 아시아 역내 무역 전망에 대한 3가지 주요 인사이트

- 1**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 중 하나로,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입지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출 부문의 강점과 점차 통합되는 지역 경제에 힘입어 한국과 11개의 주요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 가치는 2030년까지 2조 2천억 달러로 4배(2020년 기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 아시아-12의 네 가지 주요 무역 제품 부문 중, 특히 첨단 기술 부문이 한국의 무역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테일, 산업 제조 및 자동차(IM&A), 첨단 기술, 헬스케어의 네 가지 주요 부문은 한국과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에서 77%를 차지합니다. 본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첨단 기술 부문은 아시아-12의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A 부문 또한 친환경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한국의 기업들은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역내무역의 주요 장벽을 해결해 아시아 내 무역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인 역내무역 거래를 협상하고, (2) 공급망에 탄력성을 구축하고, (3) 아시아 전체의 제품 표준에 대한 일원화를 촉진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3가지 주요 사항

- 1** 공급망을 다양화하여 역풍과 기회 모두에 대비합니다. 공급망을 중국, 일본과 같은 탄력적인 무역국으로 다양화하고 호주, 아세안과 같은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무역국을 목표로 삼아 위험과 기회에 모두 대비합니다.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은 무역 흐름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2** 종합적인 디지털화, 특히 첨단 기술 부문에서 디지털화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연결성과 효율성을 구축하기에 용이한 디지털 시스템을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에서는 아직 물류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 3** 중소기업은 새로운 역내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아시아 내 무역 활동을 늘립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이미 한국 수출의 핵심 요소이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새로운 무역 협정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처럼 잠재력이 높지만 소외된 시장과의 무역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을 4배로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시아는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디지털 발전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제조 허브로 발전하고 한국의 전자 기기 및 자동차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비자 수요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면서 아시아 역내 무역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무역의 아시아 기여도 중 2/3가 아시아 역내 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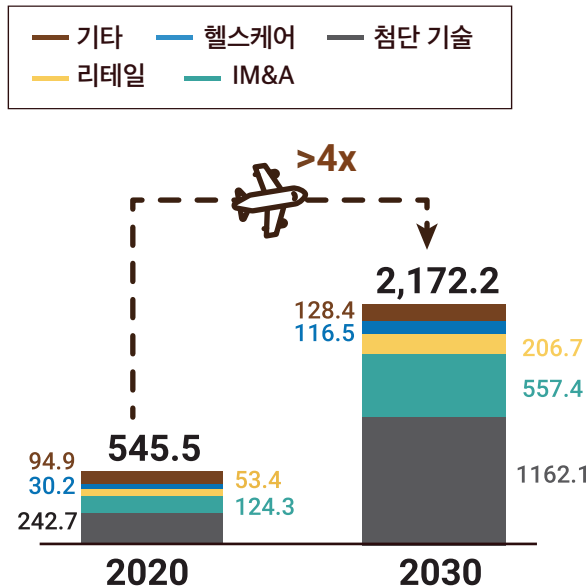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 중 하나이며 아시아 내에서 무역 활동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아시아 무역의 7%를 기여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강력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유리한 추세에 힘입어 한국의 11개 주요 시장(총칭하여 "아시아-12")과의 무역은 2020년 약 5,46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약 2조 2천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아시아의 부유하고 도시화된 인구의 증가는 거대한 새 무역 협정에 힘입어 한국의 무역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인구의 부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내 수출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 12개 시장에서만 2020~2030년 사이에 5억 6천 7백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중산층으로 추가되며, 이 기간 말에는 소비층이 15억명에 달할 것입니다.¹ 또한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통해 아시아 내 경제 관계는 더 돈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품 부문의 무역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리테일, (2) 산업 제조 및 자동차 (IM&A), (3) 첨단 기술, (4) 헬스케어 의 네 부문 중 첨단 기술 무역은 급속한 디지털화를 감안할 때 아시아-12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기술은 오늘날 무역 가치의 45%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53%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무역로는 이러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첨단 기계 및 전자 기기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 의존성이 이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증가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

그림 1
2030년까지 아시아-12 내 다른 한국의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량 4배 증가 가능

한국의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량
10억(달러)



참고: 위 추정치에 대한 방법론은 주 보고서의 부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ITC, AlphaBeta 분석

부문은 2011~202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9.6%씩 빠르게 확장했습니다(4개 부문 모두에서 전체 성장률 5.3%). 이 부문에서 베트남과의 무역은 이 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2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IM&A 부문도 한국 전체 무역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에서 약 1/4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은 2019년부터 급격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² 하이브리드 및 친환경 자동차는 주요 제품군에 속하며 2021년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36%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여 현재 자동차 수출의 1/4을 차지합니다.³

그러나 한정적인 해외 물류 역량과 제한적인 공급망 혁신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역내 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상당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역 확대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이 무역 성장을 향한 경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가장 높은 무역 장벽으로 관세 및 기타 징벌적 조치를 지적했으며, 그 외 5가지의 기타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반세계화” 상황에서 한국의 아시아-12 내 국가와의 무역은 총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무역량이 4배 증가하는 상황의 잠재적 성장률이 14.8%인 것에 비해 연간 성장률은 6%를 약간 넘습니다.

아시아-12 전역의 고르지 못한 물류 인프라 개발은 빠르게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고품질 인프라가 부족하면 한국 기업의 무역 기회 활용 잠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식 기술과 비효율적인 공급망은 물류 역량을 제한합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자금 조달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의 주요 격차를 비롯해 203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격차는 연간 1,380억 달러이며 공공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3배 더 높을 수 있습니다.⁴

또한 한국 공급망은 경제의 다른 영역에 비해 첨단 기술의 배치가 늦습니다.⁵ 한국 물류창고는 노후화 위험이 있으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 개발 진입에 대한 높은 장벽과 상대적으로 포화된 전자 상거래 부문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물류창고의 로봇 공학 및 자동화, 블록체인 기반 재고 관리 및 화물의 스마트 추적 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대규모로 사용할 중요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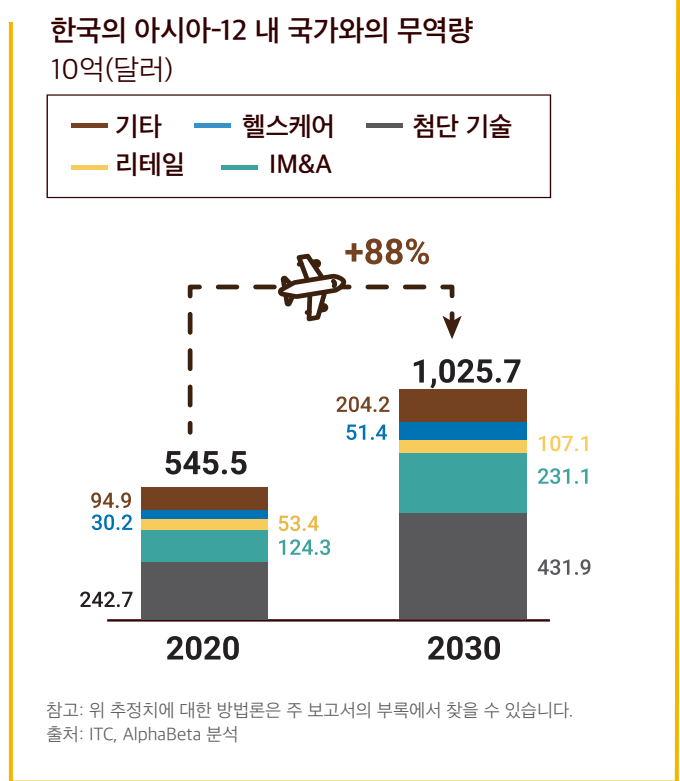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압박과 로봇 공학 및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은 무역 흐름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비용 경쟁력의 변화, 무역 확장 방지 및 한국의 무역 잠재력 차단으로 인한 노동력, 기술 부족 및 공급망 단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의 2/3는 향후 몇 년 동안 현지에서 더 많은 상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과 더 많은 거래를 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⁶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또한 이러한 무역 장벽의 큰 원인이 됩니다. 다른 국가와의 영토, 경제 및 정치적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과거에, 특히 첨단 기술 및 리테일 부문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2 한국 기업이 직면한 6가지 역내무역 장벽



그림 3 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시아-12 내 다른 국가의 무역 성장 지속 가능



아시아 역내무역 기회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내무역의 장애물을 줄이고 아시아 내 무역을 활성화할 기회를 활용하려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무역의 주요 장벽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입니다. 한국 내 여러 이해 관계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조치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남은 관세를 철폐하고, 표준에 대한 일관성을 수립하고, 통관을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분쟁 발생 시 협력과 외교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역내무역 거래를 협상합니다. (2) 기업이 무역 장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민간 투자 및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 공급망에 탄력성을 구축합니다. (3) 시장 전반에 걸쳐 더 큰 규모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벤치마크를 채택하여 제품 표준의 일원화를 촉진합니다.

한국에서 무역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과 물류 부문의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역내 무역이 제시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역풍에 대한 탄력성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조치에는 공급망 다양화, 종합적인 디지털화, 새로운 무역 협정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 증진이 포함됩니다.

01



공급망 다양화

공급망을 탄력적인 무역로로 다양화하고 고성장 및 고부가가치 무역로를 목표로 하여 역풍과 기회에 대비합니다. 한국 상공 회의소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약 90%는 여전히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양화가 필요합니다.⁷ 한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많은 무역로는 탄력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그림 4). 여기에는 한국 기업과의 깊은 경제적 유대가 있는 시장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RCEP은 처음으로 하나의 무역 협정에 이 세 경제를 포함시켰습니다.(그림 4).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및 리테일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도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대형 리테일러는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인도네시아 리테일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⁸ 반면에 무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무역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5). 특히, 아세안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밸류 체인의 일부에 걸쳐 생산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조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점점 더 부유하고 도시화된 시장에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가격경쟁력 덕분에 제조업이 강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협력 강화는 상호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02



종합적인 디지털화

특히, 첨단 기술에서 종합적으로 디지털화합니다. 한국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기술을 더 많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통 네트워크에 내장된 IoT 장치는 제품 위치의 원격 모니터링과 같은 공급망 운영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기업이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UPS Healthcare는 첨단 RFID, 메시 또는 셀룰러 센서 기술이 내장된 가시성 높은 라벨링 시스템을 탑재하여 중요한 헬스케어 포장물을 운송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적의 온도 제어를 모니터링 및 유지하는 동시에

발송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코드를 분석 및 식별하거나 통관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툴은 기업의 수출입 규제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무역을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UPS는 AI를 사용하여 개별 발송 패턴과 행동을 학습하여 발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제품을 훨씬 쉽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화 운영은 향후 10년 동안 무역의 핵심 기능이 될 온라인 서류 무역 체제에 적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UPS에서 개발한 다양한 플러그-앤-플레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기업은 국가 간 발송물에 대한 관세, 세금 및 중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결제, 프로세스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3



아시아 내 더 활발한 무역 활동 지속

새로운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무역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시아 평균이 20% 미만인것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⁹ 중소기업에게는 현재 소외된 시장과의 무역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새 역내무역 협정을 활용할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RCEP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 포함되며, 각 시장은 현재 아시아-12의 다른 아시아 국가와 한국 무역량의 단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연결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성장에 대한 강력한 기회를 제시합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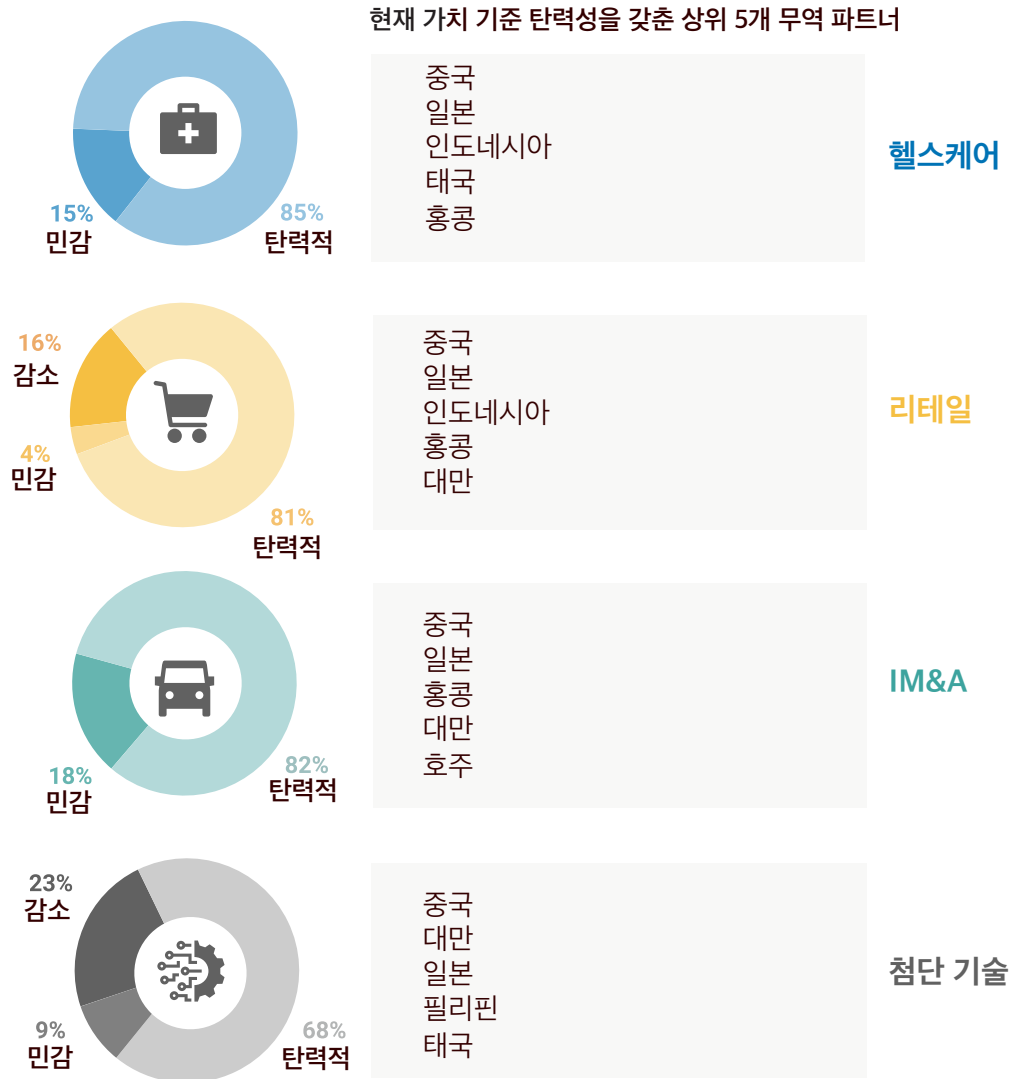
RCEP는 특혜 상품 취급, 관세 철폐, 투자, 공동된 표준 및 디지털 금융 개선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조항은 특히 이러한 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은 UPS Trade Assist™와 같은 컨설팅 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공급망을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과 협력하여 시장 정보, 자금 조달 또는 해외 비즈니스 및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¹¹

그림 4

기업은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문 내의 탄력적 무역로에 투자 가능

지정학적 충격에 민감한 아시아-12 중 한국 무역 점유율(부문별)

2020년 우선 순위 부문별 무역 가치 점유율(%)



1. 각 수치(탄력적, 민감, 감소)는 2030년에 각 범주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무역 가치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탄력적 무역은 긍정적 또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역로를 의미하며, 민감한 무역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내에서만 긍정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무역로를 의미합니다. 감소하는 무역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소폭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는 무역로를 말합니다.

출처: ITC, AlphaBeta 분석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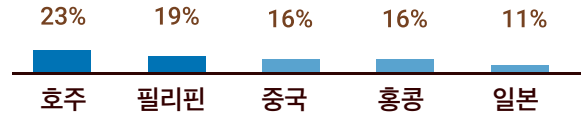
동아시아 내 국가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유지되고, 아세안 시장은 성장 기회 제공

2030년 가치 기준 상위 5개 무역로 파트너, 10억, USD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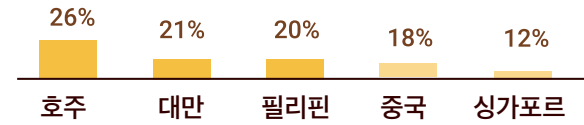
2030년까지 성장률 기준 상위 5개 무역로 파트너, %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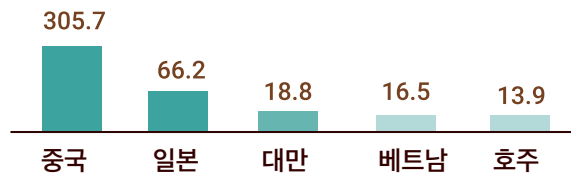
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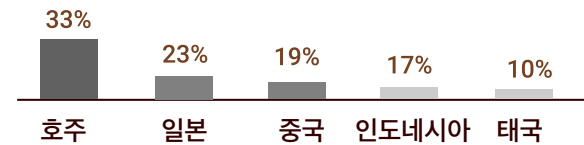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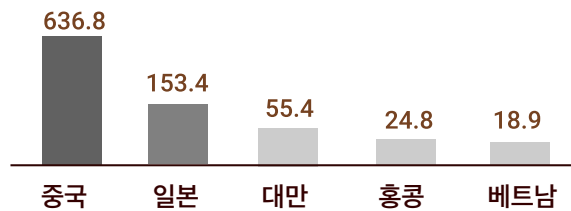
리테일



IM&A



첨단 기술



1. 예측은 1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 내 무역이 시작되고 역내무역 협정, 공급망 혁신, 디지털화의 증가와 같은 추세에 의해 활성화될 아시아 무역 환경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지침이 아닌 이상적인 결과로 간주해야 합니다.
출처: ITC, AlphaBeta 분석

Endnotes

1. 중산층은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1인당 하루 소득이 10달러에서 100달러인 가구를 말합니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0), “본 차트는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7/the-rise-of-the-asian-middle-class>
2. The Korea Economic Daily (2021), “Korea’s automobile exports log double-digit growth between Jan and May.” 출처: <https://www.kedglobal.com/monthly-trade-infographics/newsView/ked202107070004>
3. The Korea Economic Daily (2021), “Korea’s automobile exports log double-digit growth between Jan and May.” 출처: <https://www.kedglobal.com/monthly-trade-infographics/newsView/ked202107070004>
4. AlphaBeta, Temasek, World Economic Forum(2021), New Nature Economy: Asia’s Next Wave. 출처: https://alphabeta.com/wp-content/uploads/2021/09/210917-new-nature-economy-asia_high-res_spread.pdf
5. Wise Robotics(2020), “Automation Around the World — South Korea” 출처: <https://wiserobotics.com/blog/automation-around-the-world-south-korea/>
6. Asian Development Bank (2021), Asia-Pacific Trade Facilitation Report 2021. 출처: <http://dx.doi.org/10.22617/SPR210365-2>
7. The Korea Herald (2022), “9 out of 10 Korean firms ‘not ready’ for supply chain risks.”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123000147>
8. 다음 포함: South China Morning Post(2018), “Why South Koreans in Indonesia are so well accepted, and how the community is set to continue growing.” 출처: https://www.scmp.com/lifestyle/article/2140096/why-south-koreans-indonesia-are-so-well-accepted-and-how-community-set?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campaign=2140096; Temp.co ID(2021), “Indonesian Retail Store in Korea Officially Opens.” 출처: <https://en.temp.co/read/1482160/indonesian-retail-store-in-korea-officially-opens>
9. 한국 정부, 중소벤처기업부(2022), “한국 중소기업 현황” 출처: <https://www.mss.go.kr/site/eng/02/20202000000002019110610.jsp>
10. 다음 포함: Cheong, I. ERIA(2014), Korea’s Policy Package for Enhancing its FTA Uti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출처: <https://www.eria.org/ERIA-DP-2014-11.pdf>; Song, H. 및 Moon, H.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2019). Exploring the Intention of FTA Utilization by Exporting SMEs: 한국 자료. 출처: https://www.ejilt.org/archive/view_article?pid=jilt-17-1-1; 스웨덴 국가무역위원회. (2021), “How companies use free trade agreements” 출처: <https://www.kommerskollegium.se/en/publications/reports/2021/how-companies-use-free-trade-agreements/>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2022), “마케팅 및 글로벌 협력” 출처: <https://www.kosmes.or.kr/sbc/SH/EHP/SHEHP011M0.do>

